

## 소개의 말

예부터 사람들은 생명의 신비,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치,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탐색해 왔다. 중화전통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천시(天時), 지리(地利)를 중시했다. 진(眞)·선(善)·인(忍)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자 인류도덕의 초석이며, 평화와 자유의 토대이다. 이는 시공과 문화, 종교, 정치를 초월하는 가치이다.

예술가들 중에는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신성함을 찬미하며, 선과 악의 문제에 천착한다. 이들의 창작 노력은 단지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진리를 풀어내고 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예술을 창작한다. 이들의 예술은 세속적 아름다움을 초월하며 인간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런 작품이야말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전시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심신수련법 과문궁을 통해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얻었고, 삶과 우주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들은 수련을 통해 일생 동안 탐구했던 예술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됐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 경험, 그리고 수련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예술이란 형식을 통해, 인간에게 정의와 평화를 고양시키고, 도덕을 바로 세우며, 정통예술로의 복귀의 길을 보여준다. 이는 우주의 진리, 진(眞)·선(善)·인(忍)을 세속에 널리 알리는 영광의 길이다.